다문화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

— 한국 시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

김 신 정**

< 次 例 >

I. 서론
II. 식민 지배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III.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IV. 결론

I. 서론

다문화, 다문화현상, 다문화주의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 또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한경구, 2008: 89-90)을 가리키는 말로서, 최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사회 변화 및 문화 변동과 관련된 핵심 단어로 부상하고 있다. "근대 국가 체제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는 '키워드'로도 평가되는 '다문화'는 실상 최근 들어 새롭게 출현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구에서는 이미 근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중앙민족대 조선-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계발 인재양성팀이 공동 주최한 '2010년 제1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본회의(2010. 10. 3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민족국가의 형성 및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다문화적 현상이 출현하였고,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동을 기폭제로 시작되어,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들에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한국 사회의 경우에도 단일한 국가, 민족,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문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20세기 이후 근대 문명의 유입과 일제 식민 지배의 와중에서 '다문화'의 역사적 경험은 일상사의 구체적 단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개화, 식민지, 전쟁, 분단 등의 역사적 과정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이주의 증가'와 다양한 문화 융합의 사례 등은 이미 한국 사회의 '내부'에서 다문화적 현상이 확산되고 있었던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관심 역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다문화'의 역사적 과정과 다양한 양상에 있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현상의 원인이 '이주'에 있다고 판단하고 근대 체제 이후 '이주'로 인해 형성되는 다문화 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에 포괄되는 '이주'란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서,[1] 특히 식민 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 경제 글로벌리즘 등으로 인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 다른 공동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1) 한국어로 보통 '민족분산(民族分散)' 또는 '민족이산(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주로 같은 민족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이주'는 동일한 민족 혹은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 또는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블랙 디아스포라,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등의 명칭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분산(分散)'하는 디아스포라 경험과 현상을 적절히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한 민족의 '이산' 현상이 아니라 근대화와 지구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주' 현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주'란 단순히 거주지의 이동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는 '탈전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국적, 단일한 국민 정체성, 배타적인 시민권, 영토 내부에 대한 포괄적인 통치권(신옥근, 2008: 205)"으로 압축되는 근대 민족 국가의 동질성 가정은 '이주'로 인해서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동질성의 훼손 지점에서 다문화 현상,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주'는 '다문화'의 역사적 과정과 깊은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근대화 과정과 연동된 다문화의 역사성과 그 다양한 문화적·문학적 대응 양상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주'가 낳은 다문화 공간과 현상 및 그 문학적 대응 양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세기 식민 지배와 이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의 형성으로서 일제 강점기 '만주(滿洲)'를 배경으로 창작된 윤동주와 백석의 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도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로 이주노동자,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형상화한 하종오, 한명희 등의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주 체험의 형상화가 식민 지배로 인한 월경(越境)과 이주의 경험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면, 2000년대 한국 사회에 출현한 다문화의 형상화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자본·자원의 이동이 낳은 문화 현상과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주의 증가'로 나타난 전 지구적인 문화 현상의 하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형성된 문학이 조선인들의 국경 너머로의 이주에서 비롯된 반면 오늘의 문학은 다시 이주민 후예들의 모국으로의 귀환이자 또 다른 외국인이주자들의 낯선 (한국) 땅으로의 이주에서 생성된다. '이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의 형성에 주목하는 본고에서는 한반도 '밖'에서 형성된 다문화 공간으로서 '만주'라는 공간의 형성과 그 체험 양상, 그리고 20세기 말 이후 한반도 '안'이자 한국 사회 내부에서 급속히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다문화 공간과 그 체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처럼 각기 한반도의 안과 밖, 한국 사회의 내

부와 외부에서 출현한 서로 다른 다문화적 상황과 그 문학적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시점에서 다문화·다문화상황·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식민 지배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1. 다문화 공동체의 허상과 현실

중국 동북 3성에 해당하는 만주 지역은 "한민족의 이민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김경일 외, 2004: 16)"는 지역이다. 만주 지역으로의 이민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이민자 수도 가장 많았다.[2] 만주는 조선인의 이주가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된 지역이기도 했지만, 조선인뿐만 아니라 원주민인 중국인(한족, 만주족), 그리고 만주국 건설 이후 정책적이고 집단적으로 이주한 대규모의 일본인,[3] 그리고

2) 이미 1880년대 말 무렵부터 당시 청 왕조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린(吉林) 일대의 통치를 이민 정책으로 대체하였고, 조선족 전문 개간 지역으로 연변을 확정지으며 많은 조선인들이 간도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하였다. 이후 조선인 이주의 행렬은 일제의 조선 반도 지배와 만주 진출이 노골화되는 1909년 간도협약 이후, 그리고 1931년 만주국(滿洲國) 건국 이후까지 지속된다. 조선인 이주의 일차적인 이유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한 조선 농민의 몰락과 궁핍이었지만, 일제는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하면서 법적으로 일본인 신분을 갖는 조선인에 대한 '보호자'를 자처했다(김경일 외, 2004: 32).

3) 일본의 패전 당시 약 200만명에 달했던 만주 지역 거주 일본인의 숫자는 주로 193~40년대에 걸쳐 진행된 일본인 만주 이주의 큰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山本有造, 2007: 4; 임성모(2010: 134)에서 재인용).

백계 러시아인과 기타 외국인 등 '민족복합도'가 매우 높은 다문화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만주국 건국을 통해 만주를 식민화한 일본은 당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족, 만주족, 몽고족,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고 일본인의 이식을 추진하기 위해 '오족협화',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 이 '협화'의 이념은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실상 일본의 만주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초중반 만주 이주민 구성과 이주의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 혹은 조선 등 일국(一國)의 경계 안에 포괄되지 않는 "초국적 현상(transnational phenomena)"(Duara, 1997: 1043; 김경일 외, 2004: 17)으로서의 만주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조선, 몽골, 러시아와 경계를 마주하고 일본이 제국의 확장을 기도한 지역이기도 했던 만주는 이미 20세기 초반 무렵부터 다문화사회로서의 다양한 양상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절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시인 윤동주와 백석은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성장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남기고 있다. 윤동주는 간도 이민 3세대이다. 1886년 윤동주의 증조부 윤재옥이 함경북도 종성에서 간도의 자동으로 이주하였고, 1900년 조부 윤하현이 일가를 이끌고 명동으로 옮겨가면서 1917년 그곳에서 윤동주가 탄생하였다(구모룡, 2009: 51). 만주국 건국 이전의 북간도는 일제의 영향이 비교적 덜 미치는 가운데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윤동주는 수준 높은 사상적·문화적 세례를 받으며 청년기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학세계를 형성해나갔다.[4] "자족적"이고 "자기완결적"(정우택, 2009: 220)인 그의 고향 북간도의 세계에 갈등과 혼란이 틈입하기 시작한 것은 만주

4) 윤동주는, 명동교회, 명동학교의 설립자였던 외숙 김약연, 그리고 명동교회 장로였던 윤하현 등의 영향을 받으며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였다(구모룡, 2009: 51 참조).

국 수립 이후, 그가 평양 숭실 학교에서 총독부의 신사 참배 강요 사건을 겪고 다시 명동으로 돌아온 무렵이다. 그 무렵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 사이좋은正門의두돌과둥끝에서
> 五色旗와, 太陽旗가 춤을추는날,
> 금(線)을끊은地域의 아이들이즐거워하다,
>
> 아이들에게 하로의乾燥한學課로,
> 해ㅅ말간 권태가기뜰고,
> 「矛盾」두자를 이해치몬하도록
> 머리가 單純하엿구나
>
> - 윤동주(1999), 「이런날(1936.6.10)」 부분

"五色旗와 太陽旗가 춤을 추는 날"이라는 시구는 만주 지역의 "모순"적인 다문화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미 증조부 세대에 간도로 이주하고 정착하여 본인 역시 간도에서 나고 자란 윤동주에게 만주국(滿洲國) 건국 이후의 급속한 변화는 구체적인 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위의 시에서 "오색기"와 "태양기"가 "춤을 추"듯 날리는 장면은 오족과 일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마치 한데 어울려 "춤을 추"듯 '평등'과 '화합'을 내세우는 '협화(協和)'의 원리가 실제로는 일제의 패권 하에 식민 지배의 전략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다. "금을 그은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 역시 '협화'의 모순적 상황을 함축한다. "금을 긋"는 행위는 어떤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구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따로 분리되고 고립된 "금을 그은 지역"이란 일제의 점령지로 화한 간도의 현실, 또는 "오색기"와 "태양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조선

인의 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 지역 내에서 조선인의 지위 역시 "모순"과 갈등의 지점에 놓여 있었다. 당시 만주 지역을 돌아보고 작품을 남긴 유진오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다.

> 조선 사람은 황국신민이오 일본인이다....이런 전제하에 철은 만주를 갔다. 그러나 만주서는 일계(日系)와 만계(滿系)외에 또 한 가지 선계(鮮系)라는 것이 있다. 일계와 만계의 중간에 서서 선계의 지위는 복잡미묘한 것이 있는 것이었다. (유진오, 1942; 민족문화연구소, 2007: 273)

유진오가 말했듯, '선계(鮮系)', 즉 조선인은 법적으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호적제도를 통해 '반도인'으로 분류되거나(김경일 외, 2004: 24) 일본에 적의를 가진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부각되었다(김경일 외, 2004: 42). 한편 중국인들은 조선인이 일제 침략 정책의 선두에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하에 조선인을 배척했고 한동안 조선인의 이주를 법으로 금지했다.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농민과 노동자, 부랑자 등의 중하층이 한편에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지식인층, 상공업자, 극소수의 자본가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만주'라는 다문화사회는 상이한 민족, 종족, 계층들이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지배/피지배의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윤동주는 비교적 자유롭고 균질한 문화공동체에서 점차 갈등적인 다문화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형적 다문화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관계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학 시절에 쓴 위의 시가 '다문화' 공동체 안에서 식민지배 하의 불평등한 상황을 포착하고 있다면, 연희전문 시절에 쓴 다음 시는 간도를 떠

나 '공동체 밖'에서 자신과 타인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식 불러봅니다. 小學校때 冊床을 같이 햇든 아이들의 일홈과, 佩, 鏡, 玉 이런 異國少女들의 일홈과 벌서 애기어머니 된 게집애들의 일홈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홈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쓰·짬」, 「라이넬·마리아·릴케」 이런 詩人의 일홈을 불러봅니다.
>
>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 별이 아슬히 멀 듯이
>
> 어머님,
> 그리고 당신은 멀리 北間島에 계십니다.
>
> - 윤동주(1999), 「별헤는 밤」 부분

위 시에서 시인이 응시하는 대상들은 모두 "멀리 아슬히" 있는 존재들이다. 유년시절 "佩, 鏡, 玉 이런 異國少女들"과 함께 했던 고토(故土) 간도의 삶은 민족, 인종, 지역, 계층, 성(性) 등의 차이와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했던 시간으로 그려진다. "이국소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며, "아이들", "비둘기, 강아지, 토끼"같은 동물들, "「푸랑시쓰·짬」, 「라이넬·마리아·릴케」" 등의 외국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존재들은 모두 시인에게 "아름다운 말"이라는 동질성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로 불려지는 "이네들"과 시인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먼' 거리가 가로놓여 있다. 시인이 떠나온 "이네들"의 공동체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북간도"의 공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주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안온함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만주에 거주하던 무렵의 윤동주가 그 '다문화 공동체'의 허상을 예민하게 지각했다면, 만주를 떠나온 시인은 '공동체'의 밖에 서서 그 변화의 시간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2. 타문화/다문화에 대한 타자적 시선

윤동주가 고향 간도를 떠나 조선 반도와 일본에서 유학하던 무렵, 그와 달리 시인 백석은 조선 반도를 떠나 만주국을 유랑하며 시를 창작했다. 백석이 만주로 떠난 시점은 1940년 초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주에서 발간된 『만선일보』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국무부 경제부 직원 신분으로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新京)에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는 1941년 봄 이전에 공직 생활을 청산하고 유랑생활을 하다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백석의 선택에는 극히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놓여 있다. '시'와 '농사'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당시 '만주국'의 갈등 상황 - '협화'를 내세우며 '지배'를 강화하는 일제의 정책으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두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이 같은 선택은 당시 만주에 거주하던 문인들뿐만 아니라 경성 문단에서 활동하던 작가들과도 대비되는 행위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만주국의 지식인층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이 일제와 만주국의 국가 기구에 대한 종속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문화를 통한 민족 협화"[5]의 길에 협력한 반면, 백석은 만주와 조선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다. 만주에 거주하면서 만주국의 공식적 정책에 등을 돌린 그는, '협화'의 표어를 거부한 채 '불협화음'

5) 『만선일보』, 1940.3.22.

의 다문화사회 안에서 소외된 소수자들에게로 시선을 건넨다. 그 자신 역시 이주자이자 이방인으로서 동등한 소수자의 자리로 돌아가 낯선 타인들을 돌아다보고 있다.

>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 어진 사람의 즛을 어진사람의 마음을 배워서 / 수박씨 닦은 것을 호박씨 닦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밝는다 //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은 / 참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나 / 이것은 또 참으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이라 / 이마음안에 아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랜 지혜가 또 아득하니 오랜 人情이 깃들인 것이다 / 泰山의 구름도 黃河의 물도 옛님군의 땅과 나무의 덕도 이마음안에 아득한 뵈이는 것이다
>
> -백석(1987), 「수박씨, 호박씨」

> 나는 支那 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 무슨 殷이며 商이며 越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 서로 나라가 다른 사람인데 / 다들 똑 발가벗고 같이 물에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은 /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가끔 틀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두 다른데 /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은 /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 이 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기 넓고 눈은 컴컴하니 흐리고 / 그리고 길쭉한 다리에 모두 민숭민숭하니 다리털이 없는 것이 / 이것이 나는 왜 자꾸 슬퍼지는 것일까 / 저기 저 나무 판장에 반쯤 나가 누워서 / 나주볕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 듯이 목이 긴 사람은 / 陶淵明은 저러한 사람이엇을 것이고 / 또 여기 더운 물에 뛰어들며 / 무슨 물새처럼 악악 소리를 지르며 삐삐 파리한 사람은 / 楊子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와 같았을 것만 같다 / …(중략)… / 더운물에 몸을 불키거나 때를 밀거나 하는것도 잊어벌이고 / 제 배꼽을 들여다 보거나 남의 낯을 쳐다 보거나 하는것인데 / …(중략)… / 나는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人生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줄아는 / 그 오

래고 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좋고 우럴어진다

- 백석(1987), 「澡塘에서」 부분

두 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에 있다. 그 자신 이주민이자 이방인이 된 시인은 "지나 나라" 사람들의 낯선 행동, 다른 외양(外樣)을 관찰한다. "수박씨"와 "호박씨 닦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밝는다"거나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기 넓고 눈은 컴컴하니 흐"린 모습으로 "제 배꼽을 들여다 보거나 남의 낯을 쳐다 보거나 하는" 행동들이 시인에게는 모두 낯설게 다가온다. 여기서 시인은 '차이'와 '낯섦'을 무시하거나 배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행동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그 '마음'을 통해 '낯섦'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수박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행동에서 "밝고 그윽하고 깊고 무거운 마음"과 거기에 깃든 "오랜 지혜"와 "人情"을 발견한다거나, 목욕탕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서 "목숨이라든가 人生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 줄아는" "오래고 깊은 마음"을 헤아려보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백석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른 재만조선작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재만작가들과 달리, 유독 백석이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다음의 시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될 수 있다.

오늘은 正月보름이다 / 대보름 명절인데 /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 벳날 杜甫나 李白 같은 이 나라의 詩人도 /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연만 / 나는 오늘 때묻은 입

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 혼자 외로히 앉어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 …(중략)… /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넷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 먼 타관에 난 그 杜甫나 李白같은 이나라의 詩人도 / 이날은 그어늬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飯舘을 찾어가서 /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元宵라는 떡을 입에대며 /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었을것인가 /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넷 詩人들은 / 먼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元宵를 먹을 것을 /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元宵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 나도 떡국을 노코 아득하니 슬플것이로다

- 백석(1987), 「杜甫나李白같이」 부분

낯설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백석 시의 원동력은 소수자로서의 동일한 체험과 시선에서 비롯된다. 시인 역시 "외로히 타관"에 떠나와 "쓸쓸한 객고에 있는" 소수자로서의 시선은 자신과 동일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확대된다. "타관"에서 "떡국"을 찾는 시인의 마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향에서 명절을 맞이할 '다른' 이방인들의 쓸쓸함을 헤아리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떡국'을 그리워하듯 "元宵"를 찾는 타인의 풍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인의 관찰은 '나'와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먼먼 넷날로부터 대대로" 함께 살아온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과 시작(詩作)이 낳은 백석의 사유 과정은 다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살피고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당시 만주국의 다문화정책이 차이의 존중과 공존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혹은 서로의 차이를 무시한 동화주의로 작용한 반면, 만주국의 공식 정책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둔 백석은 낯선 공동체를 배회하는 이방인의 시각에

서 다문화의 또다른 관점을 이끌어낸다. 타문화를 바라보는 백석의 시선은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 2006)이자 또한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손철성, 2008: 4) 노력이 전제된 사회, 나아가 소수자들이 문화적 주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게 한다. 그에게 만주의 타문화/다문화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했고, 그를 통해 타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만주 시절에 창작된 「힌 바람벽이 있어」,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와 같은 시는 다문화체험이 마련한 '다름'에 대한 발견과 사유 과정이 곧 자신의 '다름'에 대한 자각, 즉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향을 떠나온 자리에서 이방인으로서의 백석이 발견하는 것은 "나의 자랑"과 "힘"이 아니라 "슬픔"과 "시름", "부끄러움"이다. "자랑"과 "힘"을 갖춘 우월한 "나"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자리,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자리, 곧 가난한 약소자로서의 자신을 마주하는 자리에 이르고 있다. 「북방에서」를 비롯한 백석의 만주시편은 일제 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그린 시로도 읽을 수 있지만, 다문화의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읽힌다.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로서의 '나'와 타인에 대한 백석의 관심은 곧 다양한 구성원들이 혼재된 사회에서 문화적 주체의 형성이 다문화주의의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시킨다. 기형적 다문화 상황에서 창작된 백석의 시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를 향한 주체 형성의 도정을 앞서 보여준 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1.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다문화적 혼란

앞절에서 살펴본 윤동주와 백석이 식민 지배로 인해 한반도의 경계 '밖'으로 이주해간 사람들로서 '외부'에서 형성된 다문화적 상황에 주목한 반면, 이 절에서 검토할 시들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전개된 새로운 다문화적 갈등과 혼란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화로 인한 자본의 이동과 이주의 증가는 최근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노동력 수출 국가였던 한국은 80년대 말 이후 아시아의 주요한 이주노동력 유입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오경석, 2007: 30-31). 1988년 이후 국내 이주자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국내 외국인의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 취업자격체류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며,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타이 등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한건수, 2008: 139).

외국인, 해외동포 등의 다양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문화 요소를 확산시키며, 최근 한국 사회 문화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이주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화 과정은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은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에 이주외국인 하위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 요소가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문화 관념과 근본적인 갈등을 초래하며,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대상화된 타자, 주

변부 하위주체로서 이주외국인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흔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나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비록 국적과 민족은 달리하지만, 한국 사회 내 '낯선' 존재들, '다른' 사람들로서 문화적, 계급적, 경제적인 면에서 주변부의 하위주체로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이주자, 조선족 등의 동포, 혼혈인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이주민들은 하위주체라는 위치, 타자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등적 위치로 인해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향해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제기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동을 이미 완료된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으로서의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 연유 역시 이에 근거한다. 가령, 중국 조선족 문화는 외국 문화인가, 민족문화인가? 그들은 외국인인가 혹은 한국인인가, 동포인가? 이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 - 조선족의 한국 이주와 거주라는 상황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각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외국인이주자를 형상화한 시를 대상으로, 다문화적 갈등과 혼란, 하위주체 구성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먼저 검토할 시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그린 시이다. 현재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조선이주민들의 후예이다. 냉전 체제에서 모국 귀환의 기회를 상실했던 이들은 냉전 시대의 종결, 중국의 개방 정책,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상황이 결합하면서,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로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귀환한 디아스포라는 '모국'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모국'이란 그들의 "아비", "할아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일 뿐, 다시 돌아온 그들의 후예들에게는

낯선 땅으로 다가온다. 아래 시는 귀환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포착한다.

> 아비가 젊어서 떠났던 곳에 딸이 늙어서 돌아오니 / 조선족이라고 했다 / 늙은 딸이 돌아온 곳에 따라온 젊은 외손녀도 / 조선족이라고 했다 // 그 모녀는 / 지하 셋방에서 살았다 / 새벽에 어머니가 공장에 일 나가고 딸이 들어오고 / 저녁에 딸이 술집에 일 나가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 서로 들고 나는 이부자리에서 / 서로 남긴 체온 느낄 때만 조선족이었다 // 그 모녀가 / 아비의 고향 외할아비의 고향 처음 찾아왔을 적에 / 직접 지어서 지냈다던 움집도 / 배가 고파 두레박으로 물 퍼 마시고 / 고개 처박고 울었다던 깊은 우물도 찾을 수 없었다 / 뱀장어 잡아 구워 먹었다던 봇도랑은 뭉개지고 거기로 고속도로가 내달리고 있었다 // 그 모녀는 / 아비가 젊어서 딸아이 업고 떠났던 곳은 / 먹을 게 모자라 못 나눠 먹던 데였지만 딸이 늙어서 외손녀 데리고 찾아온 곳은 / 먹을 게 남아돌아도 나눠 먹지 않는 데라는 걸 알고는 / 조선족에게로 되돌아가기 위해 / 밤낮 번갈아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 - 하종오(2004), 「아비가 떠난 곳 딸이 돌아온 곳」 전문

「아비가 떠나온 곳 딸이 돌아온 곳」이라는 제목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이 시는 '두 개의 이주'가 낳은 한국 사회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일제 식민 지배와 빈궁의 문제가 '아비'와 '할아비'의 이주를 감행하게 했다면, 예외 없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국제 이주의 물결은 그들의 '딸'과 '외손녀'를 다시 '이주'하게 만든다. 위 시에서는 '이주' 이전과 이후의 현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할아버지가 지은 "움집"과 "우물"이 사라지고 대신 "고속도로가 내달리"는 '고향'의 변화는 '두 개의 이주' 사이의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먹을 게 모자라 못 나눠 먹던" 과거의 상황과 "먹을 게 남아돌아도 나눠 먹지 않는" 현재 상황의 대비도 시간의 격차를 실감하게 하는 표현이다. "아비"

와 "할아비"의 기억 속의 고향 - 가난해도 정이 넘쳤던 옛 고향은 이제 또다른 가난과 차별적인 현실로 체험된다. 위의 시에서도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 혹은 영구적 타자로서 겪는 그들의 갈등과 혼란을 그려내고 있지만, 아래 시는 귀환한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소외와 차별의 현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발한다.

> 우리를 동포라고 부르지 마라 / 우리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 온 / 조선족일 뿐 중국동포라고 부르지 마라 / 살아 생전 가리봉 시장 메케한 중국거리 / 건두부와 컵술로 분노를 달랬었지만 / 오늘은 아내가 따르는 술 한 잔으로 / 내 흰 뼛가루 적시며 / 조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으마 / 청도보다는 칭따오가 연변보다는 옌볜이 / 아니아니 건두부보다는 단더우푸가 / 컵술보다는 커우베이주가 입술에 달았던 / 이승의 시절은 아름다웠다 / 내 조국 땅에 들어와 일하는 / 조선족, 노임 깎고 체불하고 구타했다고 / 말하지 않으마 밥이 치욕인 줄 알아버린 탓이다 / 밥은 공사판 위태로운 사다리에 있었고 밥은 나를 / 냉동실 연고자 없는 시체로 버려두었다 / 조국에 내게 베푼 마지막 은혜였다 / 나는 아내의 조사를 들으며 울었다 / 불법체류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 세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조국을 / 80일만에 와 내 백골 더듬으며 / 병원 냉동실에 누워 있었을 당신 생각하면 / 영혼이 얼어온다고 흐느끼는 / 아내의 조사를 들으며 / 커우베이주 꿀꺽 넘긴다 / 아내는 내 뼛가루 내 고향 / 흑룡강에 뿌려줄 것을 믿는다
>
> - 김윤배, 「조선족의 노래」 전문(이홍우 편, 2004)

이 시에서 반복되는 '조국', '동포'라는 말은 이중의 울림을 전달한다. '조국'과 '동포'는 귀환 디아스포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반인권적 현실의 부당함, 그리고 혈통과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단어들이다. 다시 말해 이 단어들은 '아비'의 조국이되 '나'의 고향은 될 수 없는 '조선족'의 현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이중정체성과 영구적 타자성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이주민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은 비단 '조선족'에게만 해당되는 현실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탈북자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이라고도 불리는 탈북자들은 중국 국적의 귀환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다른 이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별과 소외의 현실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 친구들 몇 북한 촌놈이라고 / 놀릴 때마다, 아이는 / 마음의 창에 오류보고를 띄운다. // (평안도 사투리는 이 땅에 없는 것?) // 탈북선에서 태어난 아이는 탈북선에서만 탈출하고 싶고 아빠의 고향은 말소하에 둔 채 PC게임 속에서만 자유롭고 싶다. 경계를 넘나들며 지뢰 묻기. 딴 나라말로 비명을 지르는 유닛들의 핏줄기를 손으로 센다. // 제가 쓰는 말은 / 사투리가 아닌가요? / 그냥 사투리, 다른 나라 말이 아닌, / 그냥 사투리
>
> - 이하, 「탈북선 아이」 부분(문학수첩 편집부, 2006)

"제가 쓰는 말은 사투리가 아닌가요?"라는 마지막 연의 질문은 자신을 "북한 촌놈"으로,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배타시하는 한국 사회를 향한 주체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말을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사투리"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라는 소년의 소망과는 달리,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의 하위 주체로 급속히 재편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시에서 포착하는 또다른 문제는 새로운 이주민 세대의 등장이다. 북한도 남한도 아닌 "탈북선에서 태어난 아이"는 "북한"을 "고향"으로 갖는 "아빠"와는 달리, 어디에도 자신의 "고향"을 두지 않은 채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고 싶다." "탈북선 아이"의 자유로운 의식과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과 다문화적 상황의 복잡성이 점차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시편에서, '모국'

을 찾아온 이주자 1세대가 겪는 이중적 민족의식과 소외감을 고발했다면, "탈북선 아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성장은 '민족'의 경계와 구분으로 포괄해낼 수 없는 이중 혹은 다중정체성의 소유자들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상황의 확산과 심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그 기원과 성격이 다른 다양한 이주자들과 동거(同居)하는 일은 한국 사회가 대면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하위 주체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과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이주민과 하위주체의 구성

2000년대 이후 이주민의 규모가 급증하고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외국 국적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흔히 '코시안'이라 불리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또는 이주노동자 사이의 자녀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문화적 상황은 한국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낯익은 풍경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음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이주로 인한 다문화 상황은 한국의 일상적 풍경을 변화시켰고, 이주자들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의 상황은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온 시인 하종오는 다문화적 일상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①

필리핀에서 시집온 롤리아 씨는 / 상추 솎다가 십릿길 걸어서 왔다 / 필리핀에서 시집온 마리안느 씨는 / 농약 치다가 이십릿길 경운기 타고 왔다 / 필리핀에서 시집온 맬리안 씨는 / 풀 매다가 삼십릿길 완행버스 타고 왔다 / 읍내까지 한국어 배우러 온 필리핀인 어미들은 / 어린아이들 업고 안고 걸리고 와서 / 책상에 앉혀놓고 걸상에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 말하기 듣기 쓰기 하고 / 어린아이들은 칭얼대고 버둥대고 비비적댔다

- 하종오(2007b), 「코시안리」 부분

②

윗집 사는 베트남 새댁이 / 소매 긴 웃옷 입고 단이 긴 치마 입고 / 아랫집 사는 필리핀 새댁 찾아오더니 / 살며시 손잡고 뒷산으로 이끌고는 /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 베트남 새댁이 더운 날에 입은 옷 보면 / 필리핀 새댁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 불볕 타지 않기는 매한가지여서 / 온몸에 멍들었을 게 틀림없었다

- 하종오(2007b), 「코시안리」 부분

위의 시 두 편은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시 ①에서, "필리핀에서 시집온" 이주여성들은 각각 먼 길을 "걸어서", "경운기"나 "완행버스"를 타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 "어린아이들 업고 안고 걸리고" 온 "필리핀인 어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 ②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적 일상에서 겪는 곤란은 의사소통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와 극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민족중심주의와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가부장제와 결합되면서,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의

문제는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전개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과정 속에서 '다름'은 '차이'의 이해가 아닌 '차별'과 '위계' 구조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경향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③

네팔에선 돼지 주인이 막대기 잡고 / 등도 배도 목도 밀며 우리로 몰아 넣어도 / 돼지가 말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후려갈기진 않았다 / 공장장은 제가 한 일이 잘못되어도 / 눈 째리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 혀 차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고 /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정수리를 내리쳤다

- 하종오(2007a), 「머리」 부분

④

폐암 말기 진단 받은 콩고 청년 / 왼쪽 손목 인대 수술 받은 우즈베키스탄 청년 / 오른쪽 손목 절단 수술 받은 네팔 청년 / 침대 위에서 창을 향해 앉았다 / …(중략)… / 회진 온 늙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에게 /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야 / 세 청년은 서로의 심정을 비로소 알았다 / 언 제 나 아 요? 취 직 해 야 추 방 안 당 해 요

- 하종오(2007a), 「세 청년」 부분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 전략으로 값싼 노동력을 따라 자본이 이동하고, 연이어 제3세계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 '더 높은 보수'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90년대 이후 한국은 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선망하는 '코리안 드림'의 목적지가 되었고,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은 내국인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업종에 투입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기반을 떠받치는 하부 구조의 역할을 담당했다(오경석, 2007: 30).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공격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오경석, 2007: 30), 정작 이주노동자 자신은 한국 사회 주변부의 하위주체로서 철저하게 타자화되는 경험을 겪는다. 위의 두 편의 시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비인권적인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구조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한다. 시 ④에서 각기 콩고와 우즈베키스탄과 네팔에서 온 '세 청년'들은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취직해야 추방"당하지 않는 불안정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들에게 "취업"이란 "폐암 말기 진단"과 "손목 절단 수술"이라는 극단적 곤경의 상황도 뛰어넘을 만큼 가장 중요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시 ③에서 한국인 공장장과 네팔인 노동자의 관계는 폭력적인 지배·착취 구조에 놓인다. 이 시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비인권적 상황을 '돼지'와 비교하고 있는 부분은 섬뜩한 인상을 남긴다. '돼지'보다 못한 고통과 비인간적 처우, 사회적 멸시의 이면에는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민족·인종적 우월의식과 자본의 논리는 제3세계 출신의 노동자를 철저히 타자화시킨 채 한국 사회의 하위주체로 위치시키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적 상황은 서로 '다름'의 공존이 아닌 차별과 위계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름'의 요소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점차 증가하게 될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다름'을 계속해서 배타시하고 한국 사회의 지배 구조 속에 동화시킬 때, 개별 이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아래 시는 이주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각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⑤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파키스탄인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무례해 /…(중략)…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짝이 없어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아무도 옆

에 가기 싫어해 / 그러던 어느 하루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하얀 옷을 입고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하얀 모자를 쓰고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이슬람 복장으로 나타났어 / 나는 그냥 조금 아는 체가 하고 싶어서 / 너는 무슬림이구나 말을 건넸지 /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눈이 반짝 빛나고 / 무하마드 아크바르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지 / 모서리가 나들나들해진 코란과 전도지인 듯싶은 종이들 / 그리고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얘기가 시작되었지 / 종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교라고 / 왜 종교를 갖지 않냐고 /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 새로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 누구도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금언을 깨뜨리지 못했네 / 적어도 그날 하루 우리 모두는 신성해져 있었네 /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힘으로 /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신의 힘으로

- 한명희(2002), 「무하마드 아크바르」 부분

⑥

파파위한 씨는 이주민이고 / 지한석 씨는 정주민이지만 /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 근무하는 노동자여서 /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 // 공장의 불문율에는 / 일하고 있는 동안엔 / 남녀 구분하지 않고 / 불법체류 합법체류 구분하지 않고 / 출신국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 그도 알고 그녀도 안다 / 세계의 어떤 법령에도 / 노동하는 인간의 신분을 따질 수 있다고 / 씌어 있진 않을 것이다 // 한국 청년 지한석 씨가 내는 숨소리에 / 미얀마 처녀 파파위한 씨는 가만히 귀 기울인다

- 하종호(2009), 「신분」 전문

위의 두 편의 시는 흔히 '이주노동자'로 불리는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개별자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네팔 청년', '필리핀 새댁'이 아닌 '무하마드 아크바르', '파파위한 씨'의 개체적 삶과 정체성에 주목한다. 시 ⑤에서 '무하마드 아크바르'라는 '파키스탄인'은 평소에 "아무도" 그의 "옆에 가기 싫어하"고 "무례하"다고 평이 난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하얀

옷"과 "모자"를 쓴 "이슬람 복장"으로 나타났을 때, '나'와 '그'의 대화는 비로소 시작되고 '그'의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신성"함에 감화되기에 이른다. 이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개별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낯설고 열등한 타자가 아니라 당당한 문화적 주체로서 거듭나게 된다. 시 ⑥「신분」에서도 흔히 이주노동자 분류의 기준이 되는 "불법체류", "합법체류", "출신국가" 등의 구분을 떠나, "이주민"인 "파파원한 씨"와 "정주민"인 "지한석 씨"가 "손발"이 척척 "맞"는 동료로 일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두 편의 시에 나타난 "무하마드 아크바르"와 '나', '우리', 그리고 "파파원한 씨"와 "지한석 씨"의 관계에서 지배와 차별, 착취 등의 위계 구조는 발견하기 어렵다. "무슬림" "무하마드" 씨의 문화적(종교적) 권리와 "미얀마 처녀 파파원한 씨"의 "노동하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주체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미래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하종오를 비롯해 이 절에서 주로 살펴본 시들은 대체로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탈북자, 이주노동자 등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 그리고 이주민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를 형상화한다. 이들 시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모 과정과 다양한 문화적 갈등 양상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순혈민족주의의 폭력성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시는 일단 소수자의 현존 자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예측해 본다면, 일찍이 그 자신 만주 지역의 소수자였던 윤동주, 백석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주민 스스로가 창작 주체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생산될 때, 진정한 이주자 문학, 다문화주의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구화 시대는 '이주의 시대'라고도 불린다. 이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이주의 문제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구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제"(오경석, 2007: 22)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주'의 문제는 비단 지구화 시대에 들어서 새롭게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멀게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유대인과 그 공동체에서부터, 가깝게는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경제 체제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야 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는 시기와 지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지만, 특히 최근 근대 체제와 맞물린 이주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시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적 양상을 띠기 시작하며, 다문화주의의 논쟁성, 다문화국가의 사례,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6년 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주도하면서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로 인한 이주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을 배경으로 한 윤동주와 백석의 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 급증하는 다양한 이주자의 현실을 그린 하종오 등의 시를 살펴보았다. 일제 강점기와 21세기 다문화 공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문화'가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이주'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주'는 근대 제국주의의 침탈과 더불어 한반도

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말 이후 지구화의 도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일제 강점기의 만주 이주는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 인해 진행되었고, 반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주'는 지구화, 탈식민지화로 인한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기 차이를 보인다. 두 개의 '이주'는 역사적 배경이나 시기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근대 민족국가론의 두 가지 원칙, 곧 국가와 사회(곧 국적과 시민권)의 동일시 및 국가와 사회의 배타적인 영토구속성이라는 원칙의 포기"(오경석, 2007: 24)를 발생시키고 근대 민족국가의 동질성 가정을 벗어나거나 손상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만주국 거주 조선인으로서 백석과 윤동주,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이주자로서 조선족,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겪는 다문화적 상황은 '동일한 국적', '동일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논리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수자와 타자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윤동주의 경우,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에서 소수자의 위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상황의 갈등을 체감하였고, 백석은 소수자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시 어떤 만주 거주민 혹은 체류작가보다도 예리하게 만주의 다문화적 상황을 포착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였다. 특히 백석의 시에서는 타자적 인식 형성의 계기로 다문화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의 삶을 그린 하종오, 김윤배, 한명희 등의 시는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과정의 실상과 그 안에서 빚어지는 다각도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들의 시를 통해서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하위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종오를 비롯해 2000년대 이주자의 현실을 그린 시는 대체로 한국 사

회 '주류'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현실을 바라보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행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 작품은 주류적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고발에 한정되어 있지만,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 주목할 때, 앞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대응하는 문학적 모색은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과 문학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2000년대 이주자의 현실을 그린 시에 대해 이주자 문학, 혹은 다문화 문학 등의 용어로 개념화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고찰한 '한국 시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은 '이주', '다문화'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동일성의 논리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바로 그것을 태생 조건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와 21세기 다문화적 상황에서 타자의 목소리와 타자적 시선에 주목한 문학을 특정한 개념 틀 속에서 확정하기 보다는 동일한 국가, 지역, 민족,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脫, trans-) 새로운 문학 현상들, 문제들로서 주목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시론적 문제제기의 글로서, 한국 사회, 한국 문학의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백 석(1987),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_____(2003), 『백석 전집』, 실천문학사.
윤동주(1999),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민음사.
하종오(2004), 『반대쪽 천국』, 문학동네.
_____(2007a), 『국경없는 공장』, 삶이보이는창.

* 이 논문은 2010. 11. 30. 투고되었으며, 2010. 12. 3.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2. 13.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12. 1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_____(2007b), 『아시아계 한국인들』, 삶이보이는창.
_____(2009), 『입국자들』, 산지니.
한명희(2002), 『두 번 쓸쓸한 전화』, 천년의시작.
이흥우 편(2004), 『좋은 시 2004』, 삶과 꿈.
문학수첩 편집부(2006), 『계간 문학수첩』 14, 문학수첩.
구모룡(2009), 「21세기에 다시 윤동주를 읽기 위하여 - 윤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적 주체」, 『작가와 사회』 37, 작가와 사회 출판부, pp.49-63.
김경일 · 윤휘탁 · 이동진 · 임성모(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김수이(2009), 「현대시에 나타난 '다문화(多文化)'의 양상들」,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33-255.
김홍진(2008), 「이주 외국인 하위주체와 타자성에 대한 성찰 - 하종오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문예비평학회, pp.161-184.
민족문화연구소(2007),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서준섭(2006), 「백석과 만주」,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pp.267-292.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 대한철학회, pp.1-26.
신옥근(2008), 「한국과 퀘벡의 다문화주의와 문학: 이주문학과 타자의 문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6, 프랑스문화예술학회, pp.201-230.
신주철(2009), 「2000년대 한국시에 드러난 다문화주의의 양상들」, 『세계비교문학연구』 2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pp.137-159.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임성모(2010), 「전후 일본의 만주 기억, 그 배후와 회로」, 『일본비평』 2,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그린비, pp.132-155.
임헌영(2009), 「윤동주와 간도 체험」, 『작가와 사회』 37, 작가와 사회 출판부, pp.16-31.
장춘식(2006), 「이민문학의 시각에서 본 윤동주의 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pp.91-106.

정우택(2009), 「재만조선인의 혼종적 정체성과 윤동주」, 『어문연구』 3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17-239.

한건수(2008),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한경구(2008),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pp.86-134.

山本有造(2007), 「滿洲の終焉—抑留·引揚げ·殘留」, 山本有造 編, 『滿洲 記憶と歷史』,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pp.1-23.

Duara, Prasenjit(1997), "Transnationalism and the Predicament of Sovereignty : China, 1900~945",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2 no. 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030-1051.

■ 국문초록

다문화 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
— 한국 시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

김신정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로 인한 이주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을 배경으로 한 윤동주와 백석의 시,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 급증하는 다양한 이주자의 현실을 그린 하종오 등의 시를 살펴보았다.

만주국 거주 조선인으로서 백석과 윤동주,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이주자로서 조선족,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겪는 다문화적 상황은 '동일한 국적', '동일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논리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수자와 타자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윤동주의 경우,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에서 소수자의 위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상황의 갈등을 체감하였고, 백석은 소수자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시 어떤 만주 거주민 혹은 체류작가보다도 예리하게 만주의 다문화적 상황을 포착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였다. 2000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의 삶을 그린 하종오, 김윤배, 한명희 등의 시는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과정의 실상과 그 안에서 빚어지는 다각도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들의 시를 통해서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하위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이주, 다문화, 다문화 공간, 타자, 백석, 윤동주, 하종오

■ Abstract

The Embodiment of Multicultural Space and "Migration"

— the Multicultural Aspects in Korean Poetry

Kim, Shin-jung

Interested in the multicultural aspects in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poems of Yoon Dongju and Baek Seok and the poems of such poets as Ha Jongoh and the likes about the reality of various 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whose number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The multicultural circumstances Baek Seok and Yoon Dongju as Koreans in Manchukuo, and the 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 Korean-Chinese, North Korean defectors, marriage migrant women, and immigrant workers - are put into crack the logic of modern ethnic nation of the "same nationality" and "same ethnic identity." The problems of minority and otherness come to the fore at this point. In Yoon Dongju's case, he experiences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situation as his position changes from an equal member of society to a minority. Baek Seok grasps and deeply reflects on the multicultural circumstances in Manchukuo by voluntarily choosing his position of a minority. The poems of Ha Jongoh, Kim Yoonbae, and Han Myeonghee, which draw on the various migrant lives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2000s, pay attention to the reality of the minor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stream Koreans.

[Key words] migration, multicultural, multicultural space, other, Baek Seok, Yoon Dongju, Ha Jongoh